

# 셰일가스, 미국경제에 활력소 작용

## 맥쿼리, 2035년 중동의존도 제로수준 변환 ... 한국경제도 성장 지속

리처드 깁스 맥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처드 깁스는 8월6일 시드니 맥쿼리 본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역대 최대의 수익과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져들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깁스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글로벌기업으로 중국 소비자의 성장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며 “생산제품의 품질도 좋지만 브랜드 네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물론 중국기업들의 추격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구 시장에서 한국 메이저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가장 놀라운 것은 시장점유율의 놀라운 상승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경제의 복원도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 동안 일본경제는 실질 기준 2-2.5%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깁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유럽경제가 실질 기준 2%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하지만, 2012년 말까지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의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처드 깁스는 “미국경제는 다소 불안한 회복을 하고 있고 고용회복이 더더 3차 양적완화(QE3)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미국경제가 고용회복에 있어 가장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신규주택 건설”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미국경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으로 셰일가스(Shale Gas)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비용 감소를 꼽았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셰일)에 함유돼 있는 천연가스의 일종이다.

리처드 깁스는 “2035년에는 미국경제의 중동에너지 의존도가 제로가 될 것”이라며 “미국경제의 에너지코스트 감소는 생산성에 IT혁명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깁스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투자가 유망한 자산으로 부동산투자신탁(리츠)과 에너지기업을 꼽으며, 에너지 기업 및 에너지경제, 유로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06>